

VC

Discovery

이달의 VC人 Zoom-In
네오플렉스 노우람 팀장



한국 VC 대표단
이스라엘 & 스페인(MWC)참관기

봄의 선물

태백산에 밝혀진 성화와 어깨를 견주며 찾아온 노란 봄,
다난했던 한 해를 마침내 헤쳐나온 희망도 움츠렸던
몸을 길게 한번 뻗어봅니다.
간밤 사이 만개한 봉오리는 새하얀 목련 꽃다발로
가지마다 등불처럼 만개하였고,
창을 열면 코끝에는 녹음이 성큼 날아듭니다.
겨우내 숨죽였던 생명들이 저마다의 젊음을 피워내는
와중, 우리 마음속 저마다의 봉오리는
이미 싹을 틔웠을까요,
새해를 맞이해 다짐했던 약속들은 모두 지켜지고 있는지요,
잠시 주위를 둘러보며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달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쩌면 작은 휴식일지도요, 젊음이 약동하는
훈풍의 계절, 지난겨울 늠름히 살아낸 나를 위해 커피
한잔 손에 들고 꽃내음을 맡으며 산책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벼워진 옷차림만큼 가벼워진 마음으로,
어깨 위 추위와 고단함도 툭툭 털어내고, 한번 걸어봅시다.
내일 피는 첫 봄꽃은 오늘을 힘내준
당신에게 바칠 선물입니다. 이제 활짝 피어날 그대와,
戊戌年 봄의 문턱에서.

CONTENTS

Market Trend

- 04 2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 10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결과
- 12 인도네시아, VC투자

Investment Insight

- 14 이달의 VC人 Zoom-In
네오플렉스 노우람 팀장
- 18 한국 VC 대표단 이스라엘 벤처 산업 탐방기
- 22 2018년 MWC 참관기
- 24 법률 Q&A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의 개정
- 26 회계 Q&A
대손충당금의 설정 방법

With Startup

- 28 투자 유망기업 탐방
- 32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운영 현황
투자협력·M&A·벤처기업확인·R&D

KVCA & Members

- 36 KVCA 소식
- 37 협회장 동정
- 38 회원사 소식
- 40 협회 신규가입 회원사 소식
- 41 연수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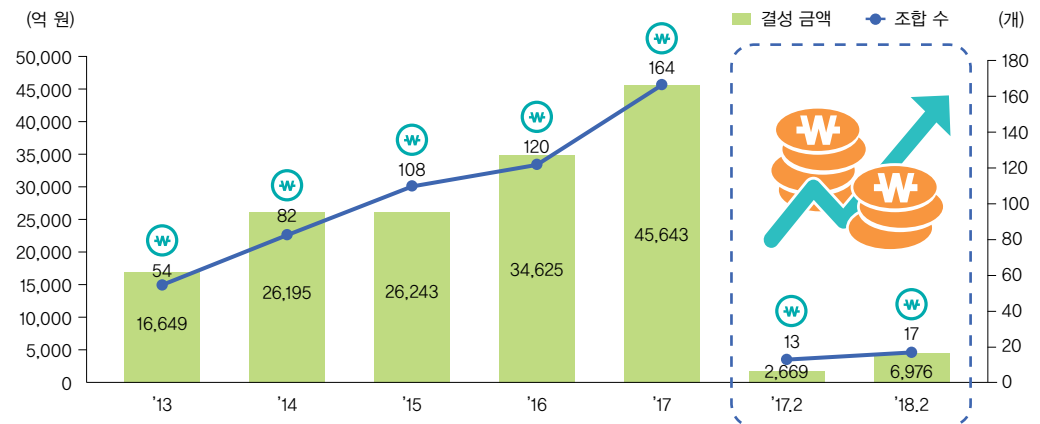
2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 2018년 2월에 4개 조합(창투조합 1개, KVF 3개)이 2,215억 원의 규모로 신규 결성
- 2월에는 총 180건(116개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신규투자금액은 2,168억 원으로 전년 동월(1,542억 원) 대비 626억 원(40.6%) 증가
- 2월 회수는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 비중이 46.7%로 가장 높았으며, 프로젝트를 통한 회수 비중이 21.5%를 차지

투자 재원

- 금년 2월까지 17개 조합, 6,976억 원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13개 조합, 2,669억 원) 대비 신규 결성 조합 수는 4개(30.8%) 증가, 결성금액은 4,307억 원(161.4%) 증가한 수치이다.

조합결성



연도별 신규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 금년 2월까지 신규 결성된 투자조합의 출자자 비중은 금융기관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연금/공제회 27.2%, 정책기관 23.8%, 벤처캐피탈이 7.6% 등의 순이다.
- 벤처펀드 출자자 중 정부(한국모태 포함), 산은, 성장사다리를 제외한 민간출자자 비중이 69.1%로 전년 동기 (72.9%) 대비 3.8%p 감소하였다.

(단위: %)

조합원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2	2018.2
정책기관 (모태)	33.0	16.5	29.7	27.1	31.0	2.4	23.8
	31.8	14.3	23.1	20.1	25.3	1.3	17.0
금융기관 (산은/정금)	27.0	22.7	24.9	24.0	24.5	19.6	32.1
	16.4	12.2	4.3	6.4	5.2	7.5	5.7
연금/공제회	8.5	20.2	4.4	9.9	9.6	6.8	27.2
벤처캐피탈	13.1	11.4	12.0	13.4	10.6	11.0	7.6
일반법인	14.4	9.7	13.7	14.5	12.5	34.5	6.1
기타단체 (성장사다리)	0.9	13.0	9.7	8.0	9.0	24.0	2.8
	0.0	11.4	8.4	4.2	3.2	17.2	1.4
개인	1.8	3.3	3.6	2.1	1.8	1.7	0.4
외국인	1.3	3.2	2.0	1.0	1.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월 신규결성조합 주요 현황

- 2018년 2월에 4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이 중 Secondary 펀드 1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결성금액별로는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컴퍼니케이 유망서비스펀드'가 863억 원으로 가장 컸고, 엘앤에스 벤처캐피탈의 '엘앤에스글로벌 반도체성장 투자조합',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의 '케이투 레페리오 투자조합'이 각각 600억 원, 552억 원으로 결성되었다.

(단위: 억 원)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금액	목적구분	투자분야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창투조합	컴퍼니케이 유망서비스펀드	863	일반	중소/벤처일반
케이투인베스트먼트	KVF	케이투 레페리오 투자조합	552	Secondary	중소/벤처일반
엘앤에스벤처캐피탈	KVF	엘앤에스 글로벌 반도체성장 투자조합	600	일반	중소/벤처일반
동문파트너즈	KVF	다산에스비에이재기투자조합	200	일반	중소/벤처일반

컴퍼니케이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KDB산업은행의 출자사업 운용사로 선정되어 863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해당 펀드는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교육, 관광 분야에 75%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LP로는 우정사업본부, 교직원 공제회 등이 있다.

엘앤에스

엘앤에스벤처캐피탈이 6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성장 펀드를 결성했다. 반도체 성장펀드는 반도체 설계·제조·소재 등의 기업과 사물인터넷·인공지능·가상현실 등 반도체가 응용된 미래 신기술 분야가 주요 투자대상이다. 해당 펀드는 작년에 지류투자에서 결성한 이후 두 번째로 결성된 반도체 성장펀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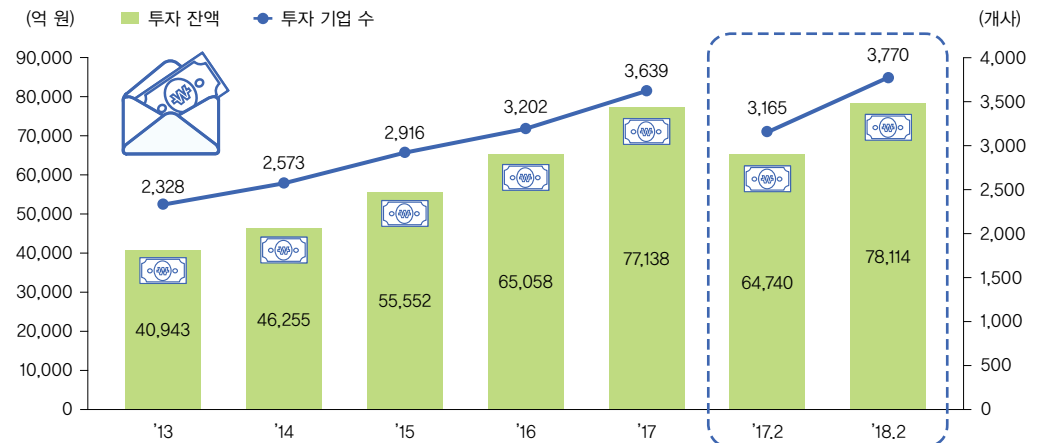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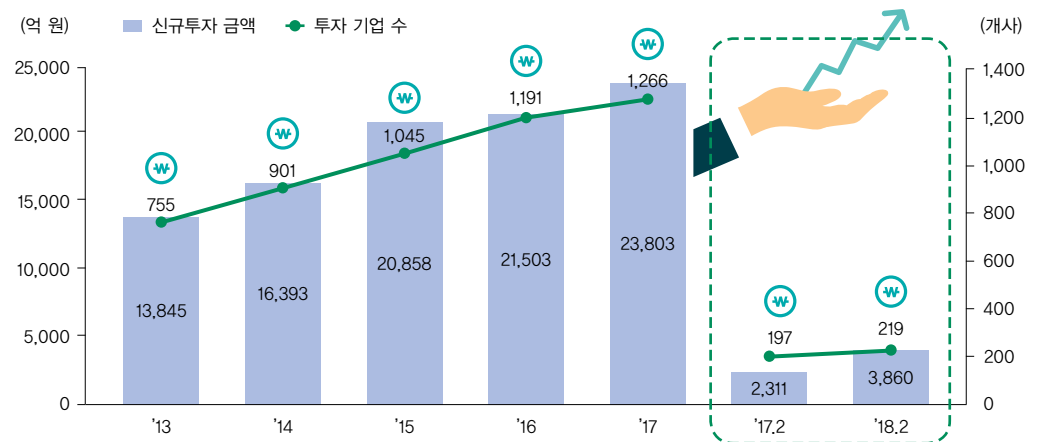
케이투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에서 552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결성했다. 해당 펀드의 결성으로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는 현재 2개의 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는 조합지분 유동화 펀드이다.

신규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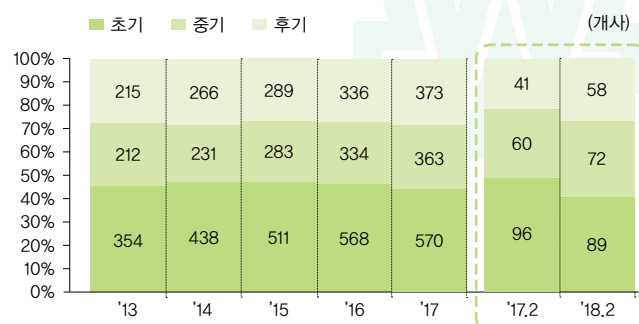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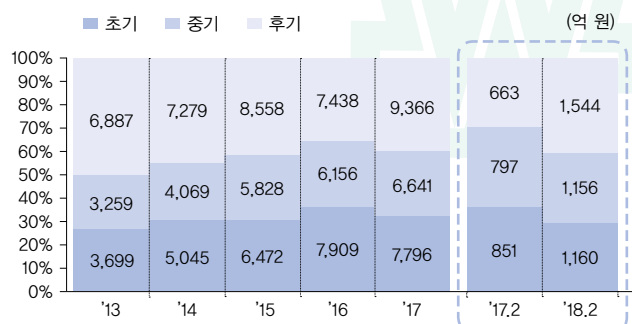
전체 신규투자 및 투자 잔액

- 금년 2월까지 신규투자는 3,860억 원으로 전년 동기(2,311억 원)보다 67.0% 증가하였고, 투자업체 수는 219개사로 전년 동기(197개사)보다 11.2% 증가하였다.
- 2월에는 코리아센터닷컴이 25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팬젠, 제이엘케이인스팩션, 케이프, 원투스엠, ZeppelinX, TwoXAR, 에스티큐브, WatchmasterICPGmbH 등의 순이었다.
- 투자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 2월까지 3,770개 업체에 7조 8,114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



업력별 신규투자

- 금년 2월까지 투자금액 기준으로 후기기업 투자 비중이 40.0%로 가장 컸으며, 초기기업 30.1%, 중기기업 29.9% 순으로 투자가 되었다. 업체 수 기준으로는 초기기업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중기기업 32.9%, 후기기업 26.4% 순으로 투자되었다.



업종별 신규투자

- 업종별로는 ICT 서비스 1,002억 원, 바이오/의료 963억 원, 전기/기계/장비 430억 원, 유통/서비스 385억 원 순으로 신규투자 되었으며, 바이오/의료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75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영상/공연/음반 분야는 84억 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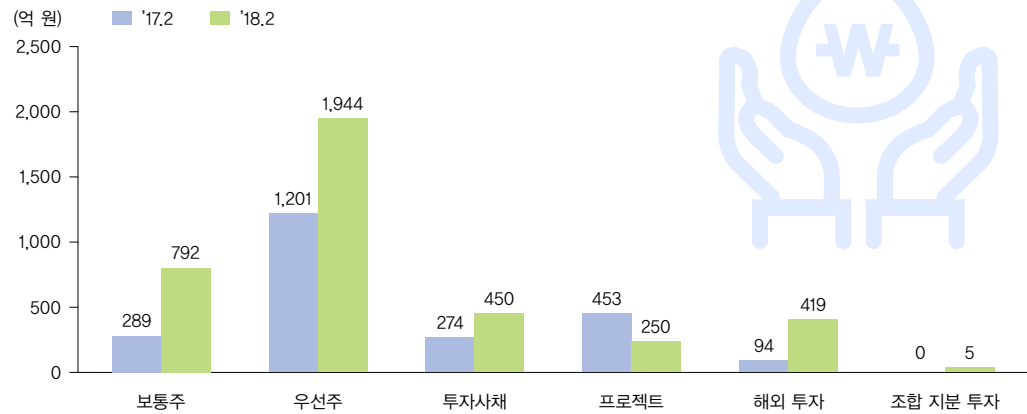


(단위: 억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2	2018.2
ICT제조	2,955	1,951	1,463	959	1,566	184	224
ICT서비스	1,553	1,913	4,019	4,062	5,159	418	1,002
전기/기계/장비	2,297	1,560	1,620	2,125	2,407	242	430
화학/소재	989	827	1,486	1,502	1,270	23	182
바이오/의료	1,463	2,928	3,170	4,686	3,788	204	963
영상/공연/음반	1,963	2,790	2,706	2,678	2,874	428	344
게임	940	1,762	1,683	1,427	1,269	256	189
유통/서비스	1,092	2,046	3,043	2,494	4,187	457	385
기타	593	616	1,668	1,570	1,283	99	141
합계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2,311	3,860

유형별·지역별 신규투자

- 투자유형별로는 2월까지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1,944억 원으로 전체투자자의 5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통주가 792억 원으로 20.5%였다. 해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25억 원 증가하였다.
- 보통주 투자가 전년 동기(12.5%) 대비 8.0%p 증가한 20.5%로 확대되었고, 우선주 투자는 50.4%로 전년 동기(51.9%) 대비 1.5%p 감소하였다. 해외투자 비중은 10.9%로 전년 동기(4.1%) 대비 6.8%p 증가하였다.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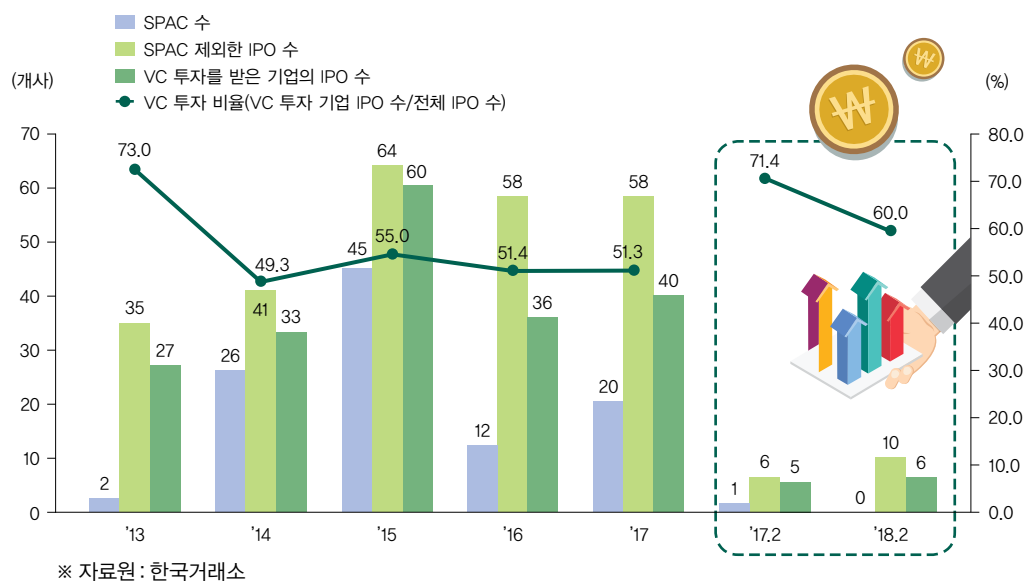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2	2018.2
보통주	3,425	3,297	4,226	4,437	5,458	289	792
우선주	5,038	6,103	8,786	10,398	10,529	1,201	1,944
CB/BW	3,049	3,276	3,272	2,823	2,881	274	450
프로젝트	1,944	2,681	2,471	2,427	2,749	453	250
해외투자	389	1,036	1,951	1,147	1,908	94	419
조합지분투자	0	0	152	271	278	0	5
합 계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2,311	3,860

- 지역별로는 서울(54.2%)을 비롯한 수도권(75.2%) 소재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 9.3%, 5대 광역시 4.6% 등의 순이었다. 해외기업에는 15개사 419억 원(10.9%)이 투자되었다.

투자 회수

유형별 회수

- 2월까지 회수원금은 1,455억 원이며, 그중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 비중이 40.4%로 가장 높았고, IPO가 26.8%, 프로젝트가 22.0% 순이었다.
- 특히, 2월은 주식 투자의 회수 비중이 높았는데, 64건의 거래를 통해 238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주식 매각을 통한 회수가 192억 원(8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2월에는 코스닥시장에 8개사(배럴, 링크제니스, 카페24, 농업회사법인아시아종묘,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엔지켐생명과학, 오스테오닉)가 상장되었으며, 이중 링크제니스, 카페24, 농업회사법인아시아종묘, 동구바이오제약, 엔지켐생명과학, 오스테오닉 6개사가 VC 투자를 받았다.



(단위: 억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2	2018.2
IPO	1,072	1,411	2,784	2,817	2,307	172	390
M&A	22	163	150	329	324	17	95
프로젝트	1,613	1,639	1,605	1,924	1,348	245	320
장외매각 및 상환	주식	2,363	3,080	3,724	3,853	356	449
	채권	1,025	1,311	1,614	1,030	57	138
기타	736	217	342	476	389	35	63
합 계	6,831	7,821	10,219	10,315	9,251	882	1,455

한국
모태펀드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결과

한국모태펀드 2018년 교육 계정 출자사업 계획이 아래와 같이 공고되어 지난 3월 14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구분	세부 내용
출자 규모	150억원 이내
신청 및 선정	- 출자제안서의 접수 : 공고일로부터 4월 3일(화) 14:00까지 - 출자선정(심의) : 5월 중
신청자격	- 조합: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른 창업 초기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 조합 - 업무집행조합원: 기술지주회사,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계정 및 분야	교육 계정의 대학창업 분야
출자계획	대학창업(1유형): 모태펀드(100억 원), 결성총액(133억 원)
	대학창업(2유형): 모태펀드(50억 원), 결성총액(67억 원)

※ 대학창업(1유형) 분야는 모태 출자 개인 투자조합을 운용하지 않는 기술 지주 등 대상. 대학창업(2유형) 분야는 모태 출자 개인투자조합을 운용 중인 기술지주회사 등 대상으로 하되, 적격 자펀드가 부족하여 예산이 남는 경우 대학창업(1유형)으로 자펀드 선정 가능

한편 한국벤처투자는 3월 14일 정시 출자사업 제안서를 마감했다. 이 결과 소셜임팩트 분야 경쟁률이 가장 치열해 총 12개 투자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청 규모는 약 1,920억 원으로 출자예정 금액 400억 원보다 약 4.8배 많다. 또한, 올해 1차 정시 출자사업 접수 결과 신청 조합 수는 총 82개로, 총 결성예정금액 2조 2,055억 원, 출자요청액 1조 2,08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출자 분야별 신청 회사명 상세 리스트는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www.k-v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성장금융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4월 중 제4차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이하 기술금융펀드) 조성에 나선다. 성장사다리펀드가 400억 원을 출자하고 2개 운용사를 선정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중 다수의 앵커 출자사업이 예고됐지만 기존 조성된 기술금융펀드 대부분이 빠른 투자 소진과 성과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출자사업 흥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2017년 제2차 「초기기업 세컨더리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결과, 현대기술투자자와 에스투엘파트너스 2곳이 최종 운용사로 선정됐다. 이들 운용사는 성장사다리펀드로부터 150억 원씩을 출자받아 최소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각각 조성하게 된다. 초기기업세컨더리펀드는 주목적 투자대상이 중소기업의 구주인데다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처 발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왔다. 펀드 결성 시기가 6개월(3개월 연장 가능)로 규정된 만큼 늦어도 연내 펀드 조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 2월 공고되었던 성장금융의 「반도체성장펀드(2차년도)」 제안서에는 유티씨인베스트먼트의 신청펀드 1개가 최종적으로 접수되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기술가치평가 출자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억원)

펀드명	운용사	총결성규모	결성시기
기술가치평가 투자 1차			
기술금융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중소기업은행-SK증권	1,000	2015. 1월
우리성장파트너십 신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	한국투자파트너스	1,300	2015. 8월
파트너스 제4호 Growth 투자조합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800	2015. 9월
네오플렉스 기술가치평가 투자조합	네오플렉스	600	2015. 9월
큐씨피제이비 기술가치평가 사모투자전문회사	큐캐피탈-JB자산운용	810	2015. 9월
기술가치평가 투자 2차			
브랜드케어 청년창조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	중소기업은행-엘엑스인베스트먼트	720	2016. 8월
아주 좋은 기술금융 펀드	아주아이비투자	520	2016. 10월
2016 KIF-IMM 우리은행 기술금융 펀드	IMM인베스트먼트	750	2016. 10월
신한-알바트로스 기술투자펀드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신한캐피탈	300	2017. 1월
기술가치평가 투자 3차			
KIF- 카카오- 우리은행 기술금융 투자펀드	케이큐벤처스	760	2017. 12월
LB기술금융펀드1호	LB인베스트먼트	540	2017. 12월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	티에스인베스트먼트-KB증권	500	2018. 1월
	BNW인베스트먼트-IBK기업은행	1,000 (~2,000개)	추진중

한국교직원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7 국내외 대체투자 자산 전년 대비 1조 2,020억 원 증가해 수익률 5.8%를 달성했다. 지난해의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기반으로 대체투자 비율을 보다 늘리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주식/채권, PE/VC, 부동산/인프라 등의 투자 자산군 별로 재편해 기금 운용전략실을 신설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내 대체투자 비율을 28.2%까지 해외 대체투자는 26.1%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군인공제회

3월 말로 계획됐던 블라인드펀드 운용사 발표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 선정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이사회가 4월 초에 개최될 전망이다. 지난 3월 2일 위탁운용사 후보자들의 제안서 접수를 마감 이후 총 8곳을 적격 예비후보(숏리스트)로 선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구술 심사(PT)를 진행했고 지난 3월 15일부터는 운용사에 대한 현장 실사에 착수했다. 군인공제회는 PEF 부문으로 총 4개 회사를 선정해 각각 300억 원씩 총 1,2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올해 VC 분야에 대해서는 총 2개 운용사를 선정해 총 2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최소 PEF 결성액은 1,500억 원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공제회는 작년 PEF 3곳과 VC 5곳을 블라인드펀드 운용사로 선정해 총 1,200억 원을 출자한 바 있다.

우정
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는 해외PEF 코인베스트먼트(co-investment) 전략 사모펀드 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출자 규모는 총 2억 달러로 2개 운용사를 선정해 운용사 평가 결과와 펀드 규모 등을 고려해 약정금액을 배분할 계획이다. 3월 중으로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완료하고 4월 현장 실사를 진행해 5월 중에는 최종 선정투자심의회를 개최해 운용사를 확정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VC 투자에 세제 혜택 늘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VC)을 대상으로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리 물리아니 재정부 장관은 VC 투자에 소득공제를 확대한 것은 디지털 경제, 특히 전자상거래(e-commerce)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첫 발걸음을 댄 것이라고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이어 물리아니 장관은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대상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VC 회사들이 투자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안 된다”며, “이번 도입될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게 될 대상은 재정 당국에 등록된 VC 회사들에 한한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2월 기준, 인도네시아 내 VC는 총 67개사로 이들의 전체 자산 규모는 약 8억 4백만 달러(한화 약 8,700억 원)에 달한다. 이들 중 약 3천 6백만 달러에서 7천 3백만 달러 규모(한화 약 390억 원에서 약 790억 원) 사이로 투자하는 VC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간 10~100%까지 세금 감면을 받게 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자국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기간을 보다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자국 투자자 세제 혜택 도입안은 인접국인 태국 정부의 최근 세금 관련 법률 개정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



협회의 히마완 야신 상무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고자 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한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인도네시아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에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에도 이러한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 확대를 증폭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작년 연말, 정부가 엔젤 등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엔젤투자 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이 공모 창투조합에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와 출자금의 10%까지를 소득 공제 혜택에 적용하겠다는 세제 지원 패키지 도입안을 발표한 것이다.

국은 자국 진출 외국 기업들에 대해 세수 확보를 위한 세법 개정에 나서며, 전자상거래 시장 내 외국 기업들의 독과점을 막고 국내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을 노리는 일본, 유럽 등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정부가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 적극성을 취하는 한편 국가 보호를 위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안에 대해 인도네시아 벤처캐피탈-스타트업협회는 “벤처업계 발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간 미래 지향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VC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VC의 투자에 따른 소득을 세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최근 정부가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투자 장벽 역시 낮아진 덕분에 국내 VC 업계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일부 VC들은 이미 동남아 타게팅 펀드를 조성해 인도네시아 등에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도네시아 시장은 모바일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관련 산업도 확대되고 있다. 해외 자본들은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발굴 열기가 뜨거우며, 인도네시아 현지 대기업과의 공동 운영하는 펀드를 만들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네시아 투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가 마련된다는 발표 이후 VC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최근 동남아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투자 업계에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달의 VC인 네오플렉스 노우람 팀장

이번 달부터 새로운 섹션으로 마련한 '이달의 VC人 Zoom-In'에서는 매월 VC 임직원 한 명을 선정하고 VC 업계에 대한 인사이트 및 개인적인 투자 소신 및 인생 철학 등을 이야기 나눠본다. 4월호에서는 네오플렉스의 노우람 팀장을 만났다.



Q 협회에서 새로 마련한 코너인 '이달의 VC人 Zoom-In'의 첫 초대 손님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흔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간 협회 사무국에서 매월 발간하는 뉴스레터를 잘 받아보고 있었어요. 국내외 최신 VC 투자 통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의 콘텐츠가 다뤄져서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VC 업계가 최근 호황인데는 이런 홍보 매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말주변이 없어서.....(웃음) 아무쪼록 인터뷰 진행 잘 부탁드립니다.

Q 이달의 VC 인물로 선정되신 이유는 최근 인도, 이스라엘, 홍콩 등 해외 무대를 총횡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 중이시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글로벌한 투자 마인드를 가지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일단 세계적인 최신 기술이나 트렌드라든지 글로벌 벤처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몸담고 있는 네오플렉스에서도 인도 시장을 비롯한 해

외 진출과 투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해외 딜(deal)에 관심을 두고 투자업체 발굴과 투자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로벌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한 가지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학창시절부터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좋아하고 또 호기심을 느끼는 곳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시장 뿐 만 아니라 선진 문물이나 고속 성장하는 해외시장에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Q 학창시절부터 어떤 것을 좋아하셨는지 팀장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로서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중학교때부터 소프트웨어에 흥미를 느껴 본격적으로 코딩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정보올림피아드 경시 대회도 출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해외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학의 길을 밟게 되었고 미국의 퍼듀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초반 벤처 붐이 한창 일 때 작은 벤처회사에서 소프트웨어 병역특례를 했었죠. 그때 네이버나 SK커뮤니케이션 등에 파견을

다니며 벤처 업계를 처음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일이 밤샘 작업도 많고 취미가 일이 되면서 관심이 좀 떨어질 때 쯤 하드웨어 쪽에 새롭게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졸업하고 미국의 텍사스인스트루먼트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서의 하드웨어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죠.

Q 그럼 엔지니어로서 일하다가 어떻게 투자 업계로 전향하게 되었나요?

텍사스인스트루먼트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국 내 경기가 좋지 않기도 했고 마침 좋은 기회가 닿아 한국에 들어와 삼성전자 DMC연구소에 TV Platform 연구직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디스플레이 쪽에도 호기심이 생겨 LG디스플레이 연구소로 이직해서 5년정도 근무했죠. 이 때 제가 담당하던 업무 중 독일, 이스라엘, 미국 등 해외의 벤처 회사들과 기술 제휴나 라이선싱을 위해 기업은 물론 VC들과 미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VC업계를 접하게 되고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후 벤처 투자에 매력을 느껴 VC가 될 수 있는 루트를 알아보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Q 말씀 중에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는데 평소에 호기심이 많은 성격인가요?

새로운 것을 보면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관련한 것들까지 공부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ICO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업체에 투자하면 좋을지 관심을 갖는 것에서 나아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을 어떻게 활용해서 비즈니스에 녹일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리고 이 기술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분산화 기술,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술, 딥러닝 기술 등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심사역으로서 제일 필요로 하는 덕목은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것을 볼 때에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그 속에서 참신함이나 특성을 찾아내는 예민함, 섬세함이라고나 할까요? 저의 이러한 성향이 투자 심사역으로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그럼 벤처투자 성격에 대해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과감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도 두려워하지 않겠군요.

네, 돌이켜보니 다양하게 하고 싶은 것들에는 과감히 도전했던 것 같네요. LG디스플레이에 있





을 때 주위에서 “너는 천상 연구원 타입이다”라는 말을 듣다가 돌연 MBA를 해보겠다고 퇴사를 했으니까요. (웃음) VC가 되려면 확고한 로컬 마켓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내에 네트워크가 없던 저는 카이스트 MBA로 진학하게 됐습니다. 엔지니어로 연구만하다가 사람을 대하는 업으로 입성한 첫 관문이었던 셈이죠.

MBA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경험해보고 이제 국내 환경도 일정 파악했으니 새로운 시장을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돌연 들었습니다. 뭐 이것도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이었죠. 그리고는 해외 MBA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상해 교통대에서 나머지 MBA과정을 받게 되었고 또 상해에서 지금의 와이프도 만났으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죠.

아무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전을하기에 앞서 몸 담고 있는 회사나 학교 등 현재에 물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나 미련은 남지 않았습니다.

Q 아까 인도 투자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인도는 아직 미주나 아시아권에 비해서 국내에서 생소한 투자 시장이 아닌가 합니다. 인도 환경의 특징이나 기억에 남는 투자 사례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VC들은 아직 인도에 대한 물리적인 거리감이나 또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선입견이 일부 있어서인지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에 직접 가서 살펴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고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인도는 소프트웨어 기술 강국만큼 경쟁력 또한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시 느낌이 좋은 기업을 만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리바바, 텐센트, 세콰이어, IDG와 같은 중국과 미국 투자 자본이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국내의 투자자들에게는 인도 시장이 아직 인지도가 낮아 아쉽죠. 인도에서는 한국의 특히 콘텐츠와 리테일 분야의 벤처기업들이 퀄리티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벤치마킹 하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VC는 중국이나 미국 자본에 비해 규모적으로

크지는 않으나 한국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해주고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VC 투자금 유치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투자 업체로 여성 컨텐츠 관련 기업과 신선육 가공업체가 있는데, 모두 한국의 관련 기업들과 만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Q 오늘 많은 이야기를 공유해 주셨는데, 업무적인 이야기 외로 혹시 올해 개인적으로 세우셨던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다이어트가 새해 목표였는데 1분기가 벌써 지났네요. (웃음) 아무래도 해외 출장도 많다보니 체력 관리 차원에서 올해는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투자 업무를 하다 보니 제 전문 분야에 대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카이스트 경영 대학에서 졸업생으로써 몇 개 과목을 청강하고 있고 또 최신 기술 트렌드를 따라 잡을 수 있는 인터넷 강좌들을 통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심사역은 아무래도 공부를 항상 해야 하는 직무이다보니 생존 전략인 셈이죠.

그런 일환으로 올해는 벤처기업도 더 많이 만나고, 또 업계 내 심사역 모임도 가능한 잘 참여하려고 합니다. 벤처투자는 아무래도 정보의 싸움이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결코 소모성 술자리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경험담을 알려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Q 그럼 마지막으로 VC에 대한 관심과 또 애정이 많은 구독자 분들께 VC 업계 종사자로서 한 말씀과 네오플렉스에 대한 자랑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최근 협회에서 주최하셨던 이스라엘 현지 방문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작은 내수 시장을 가진 나라지만 유럽, 북미 시장을 본인들 내수 시장인 것 마냥 활용하는 것에 방문한 VC 대표님들 모두 부러운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국내 창업팀들도 이제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팀들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런 회사가 많아질 수록 벤처 생태계도 활성화되고 나아가 일자리도 많이 창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한 자랑을 빼놓을 수 없겠죠? (웃음) 첫째로 네오플렉스는 민주적입니다. 투자 심사역이 들고 온 딜에 대해서 투자심의 위원회를 열 때 계급장 떼고 주니어부터 임원까지 모두가 동등한 1인 1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의견이 설득되고 또 수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적입니다. 각 심사역이 들고 온 딜에 대해서 경쟁하기 보다는 부족한 부분은 서로 메꾸어 주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그룹 계열사다보니 특히 해외 업체 미팅시 인지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네오플렉스는 PE 합산 운용규모가 1조원이 넘고 펀드도 적극적으로 만드는 등 업계에서도 활발한 VC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외로 우수한 투자처를 발굴하는 한편 언제나 우수한 인재에게는 문이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국 VC 대표단 이스라엘 벤처 산업 탐방기



김요한
DSC인베스트먼트 수석팀장

지난 3월, 총 20여 명의 VC 대표단이 'Start-up Nation'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 다녀왔다. 필자는 지난 3년간 이스라엘 바이오 기업 3곳에 투자를 집행하며 이스라엘 벤처업계를 접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번 방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Start-up 생태계와 신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참관기에서 이스라엘 벤처 환경을 방문지 별로 정리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스라엘 창업 생태계 Overview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850만 명으로 남한 인구의 1/5이 안 되지만 Start-up 기업은 약 6,000개로 인구 당 Start-up 수의 비율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매년 500개 이상의 Start-up 기업이 창업되고 있다. 또한, GDP 대비 R&D 투

자 비율은 세계 1위이고 Google, Samsung 등 약 30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이스라엘에서 R&D 연구소를 운영 중이며, 국민 1인당 특허 신청 역시 최다인 국가이다. 이스라엘에서 현재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VC 펀드는 약 70개로 2017년에는 매 분기당 1조 원 이상이 이스라엘 벤처 기업에

한·이 VC 비즈니스 포럼 현장과 샤로나 빌딩 전경





Samsung NEXT Tel aviv 소개 장면

투자되어 총 5.3조 원이 조성되었으며, 112개 업체에서 230억 달러(약 25조 원) 규모의 자금 회수가 일어났다. 특히 2017년 인텔에 153억 달러(약 17조 원)에 인수된 모빌아이와 길리어드에 119억 달러(약 13조 원)에 인수된 카이트는 IT 분야와 바이오/제약 분야 대표적 M&A 건으로 이스라엘 Start-up의 뛰어난 기술적 방증이라 여겨진다. 또한, 정부 자금 지원과 해외 투자자 세금 혜택 등 매우 다양한 이스라엘 정부 지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창업/투자/정부지원/R&D/회수까지 창업 생태계 전 영역이 매우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

Korea Israel Innovation Center(한-이 혁신센터)

첫 방문지였던 한-이 혁신센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샤로나 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센터 내에는 현지 Start-up을 위한 업무 공간 및 공유 부대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멤버십 가입 시 보유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투자 기업 발굴/ 현지 이스라엘 VC와 공동 투자

기회/ 법률 세금 및 각종 규제 지원을 제공하여 한국 벤처 자금과 이스라엘 기업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센터의 특기할 점이다.

Samsung Next Tel aviv

Samsung Next Tel aviv는 삼성이 미국, 한국에 이어 세 번째로 개설한 이스라엘 텔아비브(Tel aviv) 지원센터로, 전 세계 혁신기업들과 제휴를 맺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하고 제품을 비즈니스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재까지 전 세계에 67개 기업에 투자를 완료하였고 15개 기업을 인수하였으며 8개 기업을 exit 하였다. 센터 이름에 드러나 있듯 향후 삼성의 차기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 연구 개발을 협력하고 그들의 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제품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는 조직이다. 이 센터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모델을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start-up에서 찾으려는 삼성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The future is about the thoughtful integration of hardware and software'라는 DAVID EUN 대표의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다.



FutuRx 입주 기업 현황

Sosa(South of Salame)

Sosa는 2013에 설립된 기술혁신 허브 글로벌 네트워크로, 약 5,000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150개 이상의 다국적 투자기관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Sosa는 순수 민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의 유명 투자자와 기술 전문가가 주주로 참여하였다. 주주들이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게 본 기관의 특징이고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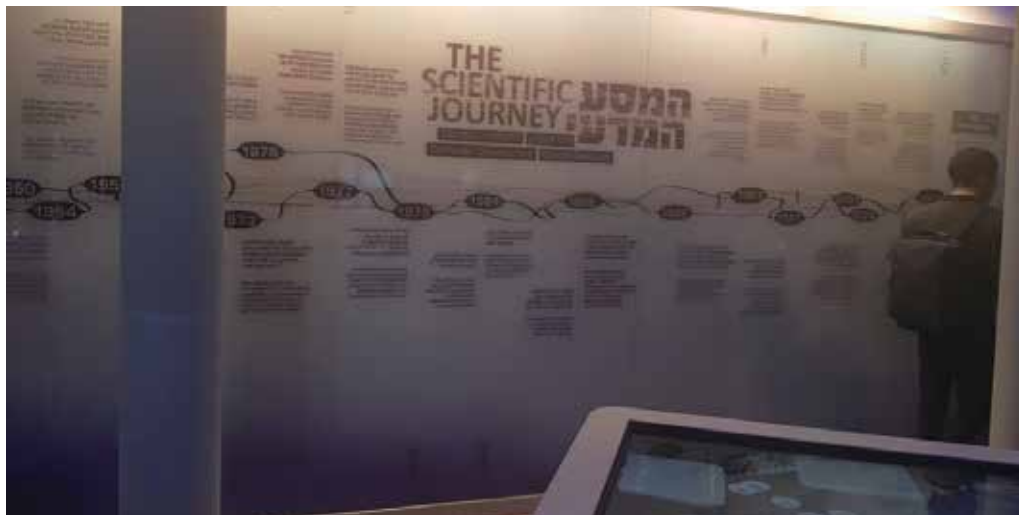
FutuRx(바이오테크 인큐베이터 & 엑셀러레이터)

FutuRx는 바이오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엑셀러레이터이다. 이스라엘 바이오 초기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정부 주도로 2014년도 설립되었으며, 오비메드/다케다/존슨앤존슨이 참여하여 혁신적 바이오기술의 발굴 및 초기 투자 인큐베이팅을 진행하고 있다. FutuRx에 선정된 기업은 2,3백만 달러의 초기 시드 머니 지원뿐 아니라 오비메드/다케다/존슨앤존슨으로부터 신약 개발 가이드던스 및 실험 연구실 인프라도 지원 받는다. 시드 머니 투자 이후엔 후속 펀드레이징 도움도 받게 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술과 하버드, 존스홉킨스, 스탠포드 등

미국 유수 연구소의 기술도 FutuRx 소속 기업으로 편입되었다. 지금까지 BiomX 외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BiomX는 FutuRx 입주 이후 2017년에 오비메드/다케다/존슨앤존슨/미래에셋금융그룹으로부터 2천 4백만 달러(한화 약 270억원)를 성공적으로 펀딩 받았다. 일반적인 공유 오피스와 달리 공유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초기 바이오 기업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초기기술개발/펀딩/임상 전략 등을 동시에 해결해 준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국 바이오 생태계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벤치마크 한 인큐베이터가 생기길 기대해 본다.

이스라엘 기술의 요람 Weizmann Institute(와이즈만 연구소) & YEDA Research and Development

와이즈만 연구소는 독일 막스프랑크,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 등과 함께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로 꼽히는 이스라엘 기술의 요람이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잘 알려진 Copaxone 과 Rebif가 와이즈만연구소에서 개발되었으며, 3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2명의 이스라엘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와이즈만 연구소는 기술이전 회사 YEDA를 통해서 연구 성과물을 기술이전 하여 사업화하고 있다. YEDA는 와이즈만의 연구



와이즈만 연구소 연혁

성과를 단순히 연구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이 원하는 기술로 만들려는 철학이 확고하였다. 하지만 기술이전 상대를 고르는데 대기업을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해당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업가정신과 열정을 가진 대상이 YEDA가 기술이전 상대를 고르는 기준이다. YEDA가 와이즈만 연구자와 사업 개발자 사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와이즈만과 YEDA가 현재 받고 있는 로열티는 연간 약 1,000억 원 이상으로 이 자금은 다시 혁신적인 연구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이스라엘 현지 VC와의 미팅

OurCrowd, Gliot Capital, Target Global, The Time 등 이스라엘 현지 VC와의 미팅을 진행하였다.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벤처업계 생태계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고 각각 VC의 투자 철학 투자 현황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한 기술 섹터 3가지는 AI, cyber security, automotive라고 한다. 특히 모빌이기가 인텔에 인수된 이후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요소 기술 회사들이 이스라엘에 모이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관련 기술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한 발 더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맺음말

이번 방문을 진행하는 내내 이스라엘 벤처 생태계의 우수한 성과와 혁신 원천이 무엇일까, 궁금증이 들었다. 군대에서 양성되는 고급 인력, 구축된 고급 인프라, 강력하고 신속한 정부 지원, 경험 많고 노련한 벤처캐피탈 등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의 소통과 융합 그리고 글로벌화가 그 원천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연구기관, 벤처기업,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정부는 상호 밀접하게 소통하고 융합하여 초기 기술이 사업화되는 데 공동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직원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기술의 우수한 성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큰 힘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번 한국 VC 대표단의 이스라엘 현지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상호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이번 한국 VC 대표단 방문을 준비해 주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경제무역대표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8년 MWC(Mobile World Congress) 참관기

IMM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 업무를 시작한 지 어느덧 8년 차가 되어가는데,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 CES나 MWC는 처음 참여하게 되어 출발부터 기대가 컸다. 과거 모바일 관련 하드웨어 업체에 대한 투자를 몇 차례 했으나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최신 기술 및 시장의 트렌드를 읽을 역량을 키우고자 참여했다.



구재운
IMM인베스트먼트 이사

올해 MWC는 2018은 12만㎡ 규모에 총 8개 Hall로 구성되어 2,3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며, 한국관(Korean Pavilion)도 약 7곳이 준비되어 있었다. 5G, AI, IOT,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변되는 기술 발전과 시장 흐름이 궁금하여 국내외 통신사(SKT, KT, NTT도코모 등), 스마트폰 제조사(삼성, LG, 화웨이, 샤오미 등) 및 AI 플랫폼 업체 등을 중심으로 방문했다.

스마트폰 제조사

국내 대표주자 격인 삼성은 카메라 조리개 조절 및 슬로우모션(Super Slo-mo) 기능이 강조된 Galaxy9을 공개(unpack)했고 LG전자 역시 조리개 조절 기능 부스를 통해 카메라 기능을 선보였다. 중국 ZTE의 경우, 플렉서블 패널은 아니나 기계식으로 접히는 제품을 선보여 참신했다. 또 다른 중국업체인 화웨이는 이번 MWC의 메인스폰서로, 샤오미 신제품이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부스의 규모, 미디어의 관심도 등을 볼 때 이미 글로벌 기업이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과거 피쳐폰의 대명사였던 노키아와 금융권 전용 폰 블랙베리가 재기를 노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스마트폰 대세에 뒤처진 후 회복이 쉽지 않음을 확인했다. 특히, 블랙베리는 과거보다 개선하였지만, 여전히 키패드를 고집하여 디스플레이 공간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스마트폰 제

조사들을 둘러보니 삼성을 필두로 카메라 기능 홍보에 중점을 두었고, VR 주변기기 등을 추가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향후 플렉서블/폴더블 디스플레이가 곧 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5G

KT, SKT 등의 국내업체와 퀄컴, 인텔, 화웨이가 각각 VR(가상현실)·AR(증강현실)·드론 등을 활용해 5G 구현 형태로 소개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KT는 부스 내 다양한 아이템을 준비해 미디어의 관심도 대단히 높았다. 올해 평창올림픽 시범 서비스 이후 2019년 초 5G 상용화를 예고한 바 있어 과연 내년 MWC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다. 매년 MWC를 참석하는 참가자 가운데 5G 관련 전시는 작년이 더 나았다는 평이 일부 있었다. 한편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등의 5G 장비업체 전시관은 사전 등록제 B2B 전용관으로서 현장에서는 관람을 못 했으나, 후담으로 ① 화웨이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5G 칩셋 장비 단말 솔루션을 선보였고, ② 에릭슨은 4G와의 호환성, ③ 노키아는 5G 장비 소형화용 자체 통신칩을 선보인 것이 알려졌다.

AI & IoT

AI의 경우 구글 어시스턴트가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었고, 아마존 알렉사 등 여러 플랫폼이



ZTE 액손 M
기계식으로 접히는 양면 디스플레이 폰. 펼칠 경우 1개 화면으로 인식함



블랙베리 키원
키패드에 많은 기능을 부여했으나 디스플레이 공간은 확보하지 못함



예전보다 개선되어 인상 깊었다. Galaxy9 AI 빅 서비스를 테스트해보니 한국어/영어 모두 수월하게 가동되는 모습에 AI의 발전 속도를 느낄 수 있었다. 한편 IoT는 플랫폼 업체 중심의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구현이 눈에 띄었는데 다만 플랫폼 업체들이다 보니 AI나 IoT가 적용되는 디바이스 및 환경 예를 들어 Wifi와 센서가 탑재된 가전제품, Door lock 등은 볼 수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신형 A 클래스를 통해 AI 적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개했는데 운전자가 음성으로 차량 내 음악, 내비게이션 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끝으로, 이번 MWC에 참관해보니 AI와 5G라는 인프라(플랫폼)가 각각의 디바이스(스마트폰, Wifi/센서 탑재 제품 등)와 함께 발전하며 IoT와 그 유관 산업을 풍부하게 할 것이라 느꼈다. 또한, 전시장 내 한국관의 설치 준비가 잘되어 현지 미디어의 관심을 많이 받는 모습이 무엇보다 보기 좋았다.

머지않아 AI는 사용자 편의성을 최고조로 높이

는 한편 5G 대용량 정보를 동시간/초저지연 환경하에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게임 & 레저, 자율주행차, 스마트홈/공장/오피스 등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하게 접목될 것이 예상된다. 관련 최신 기술을 관망하며 앞으로 어떤 분야와 업체에 투자할지 즐거운 고민이 들기도 했다.

아마 업계 전문가들은 MWC에서 소개된 트렌드와 업체 등을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필자처럼 전문성 강화에 니즈가 큰 심사역에게는 MWC 참관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제 전시회를 꾸준히 모니터링한다면 투자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도 했다. 또한,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 시장을 알리는 MWC 상하이도 6년째 개최되고 있다고 하니 이러한 국제 행사도 적극 알리고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20여 명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원해 주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감사 말씀을 전한다.

- ① LG전자 전시관 내 VR 체험 부스 - 필자
- ② NTT 도코모 5G 로봇-초고속, 초저지연 원격 제어 로봇
- ③ 구글 어시스턴트 야외 부스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의 개정; 모태 출자 없는 펀드의 결성 관련 개정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한국벤처투자조합 중 모태 출자 없는
펀드의 적용 범위 확대?

1. 관련 규정 개정

-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일부 개정 2018.02.23.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14호]

제4조의2(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법 제4조의3 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이라 함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 중 하나와 제3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출자금 총액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할 것
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나. 중소·벤처기업 기 발행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 유한회사 출자 등의 인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제3항 및 제22조 제3항에 따라 투자할 것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출자를 받은 조합을 한 개 이상 운영하고 있을 것
나. 한국벤처투자조합 운용인력 중 1인은 유

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일 것

2. 모태 출자 없는 펀드결성 범위의 확대

가. 기존 범위

-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제4조의2(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호에 따라 (i)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M&A 조합(제1호의 가목.), (ii)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기 발행 출자지분 등에 대한 세컨더리 조합(제1호의 나목.)

나. 확장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제3항 및 제22조 제3항에 따라 투자할 것
- * 제21조 제3항(업무의 집행 등) 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날까지 출자금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을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령에서 정한 용도로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및 제5호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투자 회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정 사유로 등록 후 3년이 지난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의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년 이내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 * 제2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

와 운용)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시장 상장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 총액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 투자의무비율과 상장회사 투자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40%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는 형태는 모태 출자 없는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 가능
-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같이 모태 출자 없는 펀드결성 가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공고



통합법 공고 내용의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가. 투자방식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추가 (안 제2조)

- 벤처투자 선진국인 미국에서 창업 초기기업 투자 난점에 활용하는 SAFE와 유사한 투자 방식을 허용하기 위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벤처투자 대상 확대 (안 제3조)

-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벤처투자를 제외, 전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토록 함.

다. 지역균형 투자 활성화 근거 마련 (안 제4조)

-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 간 벤처투자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립 법적 근거

를 마련함.

라. 창업투자의무의 유연한 적용 (안 제31조, 제46조)

- 창투자 자본금과 개별 창업투자조합별로 창업투자의무가 부과되던 것을 운용자산 전체에 대한 의무로 변경, 창업투자회사의 자율적인 자산운용을 허용함.

마. 벤처조합의 일원화 (안 제45조)

-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되었던 벤처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함.

바. 한국벤처투자의 법정 기관화 (안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를 법정 기관화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함.

1.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등) ① 법 제21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40을 말한다.

대손충당금의 설정 방법



박상학
신정회계법인 이사/회계사

● 대손충당금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산정의 문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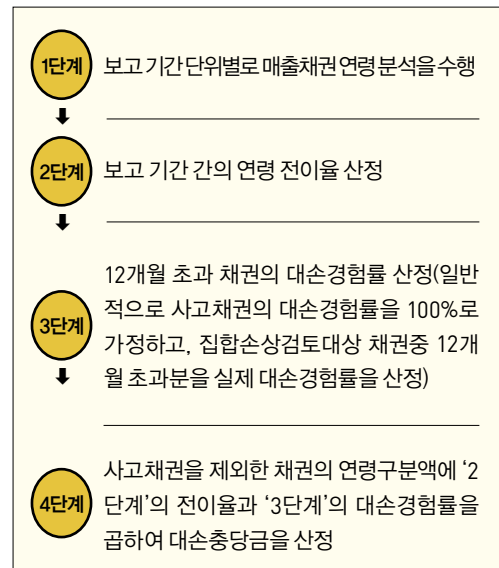
● 개별손상과 집합손상으로 구분하여 개별손상의 손상경험치를 집합손상의 전이율과 결합하여 최종적인 대손충당금을 산정하여야 함.

회사를 실사하거나 감사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하여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다. 그럼, 과연 대손충당금은 협상에 관련된 사항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협상보다는 단순산정에 관한 문제이다.

대손충당금을 논하기에 앞서, 회수 가능 가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회수 가능 가액이란, 자산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되고 있다(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18).

일반적인 매출채권의 공정가치 또는 사용가치는 채권 가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하며, 이에 회수를 위한 부대비용(예, 채권추심비용 등)인 처분(회수)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회수 가능 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검토는 크게 부도, 폐업 등으로 실제 대손이 확정된 '사고채권'에 대한 대손검토를 '개별 손상검토'라 하고, 사고채권 이외 채권에 대한 대손검토를 '집합 손상검토'라 한다.

대손충당금 설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상기의 과정을 적용한 대손충당금 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보고 기간 단위별 매출채권 연령분석

보고 기간을 3개월로 가정하여 매출채권에 대하여 연령분석을 하면 [표1]과 같다(단위: 백만 원).

2단계 ▶ 보고 기간 간의 연령전이율 산정

[표1]

구분	0~3개월	3~6개월	6~9개월	9~12개월	12개월초과	계
Dec-16	3,335	627	431	100	1,101	5,594
Mar-17	2,964	981	508	399	1,128	5,979
Jun-17	5,122	877	374	388	1,397	8,158
Sep-17	2,097	1,317	516	344	1,709	5,983
Dec-17	4,991	270	977	389	1,749	8,376

[표2]

구분	0~3개월→3~6개월	3~6개월→6~9개월	6~9개월→9~12개월	9~12개월→12개월초과
Mar-17	29.41%(*)	80.95%	92.66%	26.35%
Jun-17	29.60%	38.10%	76.42%	67.55%
Sep-17	25.72%	58.83%	92.14%	80.28%
Dec-17	12.87%	74.16%	75.36%	11.77%

(*) Mar-17의 '3~6개월' 채권금액(981백만 원) / Dec-16의 '0~3개월' 채권금액(3,335백만 원) *100 = 29.41%

상기의 연령분석 결과를 근거로 보고 기간의 채권연령 전이율을 계산하면 [표2]와 같다. 전이율이 의미하는 바는 전 보고 기간의 채권 잔액이 당 보고기간의 다음 단계 연령으로 어느 정도 잔존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상기 기간 간 전이율의 평균치를 산정하여야 하며, 본 예시에서는 직전 12개월간의 평균치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3]과 같다.

3단계 ▶ 12개월 초과 채권의 대손경험률 산정

본 예시에서 2017년 12월 31일 현재 12개월 초과 채권 금액(1,749백만 원) 중, 사고채권 금액이 273백만 원이고, 과거 12개월 초과 채권 금액 회수 경험률은 10%(=대손율 90%)임을 가정한다.

4단계 ▶ 사고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연령구분액에 '2단계'의 전이율과 '3단계'의 대손경험률을 곱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

상기의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도출자료를 근

거로 대손충당금 총액을 산정해보면 [표4]와 같다(단위: 백만 원).

상기에서 '전이율 누계치'는 각 연령별 채권 금액이 '12개월 초과'로 전이될 비율을 의미한다. 예로서, 상기 표의 '0~3개월'의 전이율 누계치(6.01%)는 '2단계'에서 산정된 전이율 평균치에서 3개월 미만 채권이 12개월 초과 채권이 되기까지의 전이율인 '24.40% x 63.01% x 84.15% x 46.49%'로 계산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시가 된 매출채권 8,376백만 원에 대손충당금은 2,438백만 원(대손설정률 29.11%)으로 설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각 회사의 전이율과 대손경험치를 근거로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이율과 대손경험치는 보고 기간 말에 매년 변동이 되며, 매 보고 기간 말에 이에 대한 산정은 재수행 되어야 한다.

[표3]

구분	0~3개월→3~6개월	3~6개월→6~9개월	6~9개월→9~12개월	9~12개월→12개월초과
Dec-17	24.40%(*)	63.01%	84.15%	46.49%

(*) 24.40% = Average(29.41%, 29.60%, 25.72%, 12.87%)

[표4]

구분	0~3개월	3~6개월	6~9개월	9~12개월	12개월초과	사고채권	계
채권 금액(A)	4,991	270	977	389	1,477	273	8,376
전이율 누계치(B)	6.01%	24.65%	39.12%	46.49%	100%	100%	
대손율(C)	90%	90%	90%	90%	90%	100%	
대손추계액(D=A*B*C)	270	60	344	163	1,329	273	2,438
대손설정률(D/A*100)	5.41%	22.18%	35.21%	41.84%	90.00%	100.00%	29.11%

“세계시장을 향해 전진하는 작은 거인 생체의료용 소재 생산의 강소기업” 투자 유망 기업 탐방_(주)티디엠

(주)티디엠은 법인전환 전 김선미 대표를 중심으로 같은 직장 동료 4명이 2005년 12월 경기도 성남 을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트라디메딕스로 첫 출발을 하였으며, 2007년 3월 광주테크노파크보육센터로 이전하여 2009년 9월 (주)티디엠으로 법인 전환했다. 현재는 외국산 제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료기기 시장에서 골절치료제품 국산화에 성공하며, 2017년 기준 매출액 111억 원, 당기순이익 15억 원, 약 300만 불에 가까운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지속적 R&D를 통한 시장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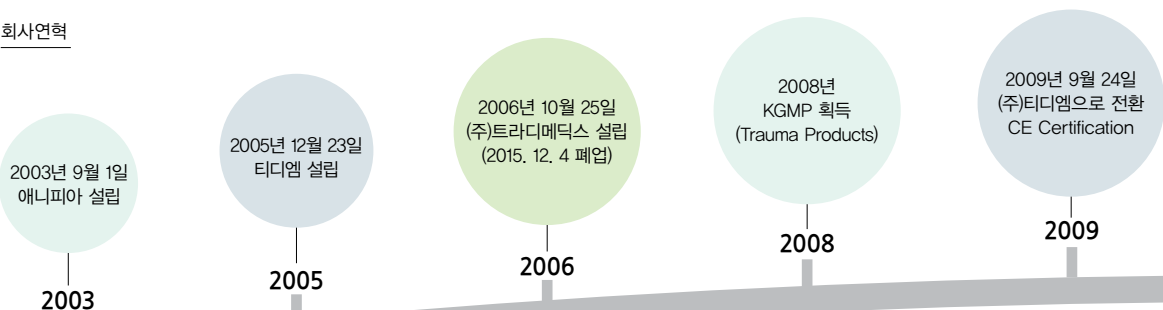
(주)티디엠의 이름은 Trauma(골절), Disease(질병), Medics(극복)의 합성어 'Tradimedics'에서 가져온 것으로, 골절과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만들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주)티디엠의 강점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한 기술력에 있다. 2011년 10월에 설립된 기업부설 연구소를 바탕으로 연구수행 능력을 향상하며 생체의료용 소재 생산의 기본적 이론 토대를 구축하고 있으며, 개발부를 통해 (주)티디엠 생산 제품의 응용과 상용화를 위한 개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보유한 특허 26건 외 다수의

특허 출원과 디자인 등록, 상표등록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 R&D 투자 집중 결과로 국내 최초 '골 접합용' 정형외과 의료기기 국산화에 성공을 거두었다.

기존의 골 접합용 의료기기는 수입의존율이 높고, 서구인 기준으로 제작되어 동양인 체형에 맞지 않는 점에 착안해, 현직 의사들의 조언 속에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동양인 체형에 맞는 새로운 골 접합기구를 개발했다. 여기에 의료기기 마케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김선미 대표의 경력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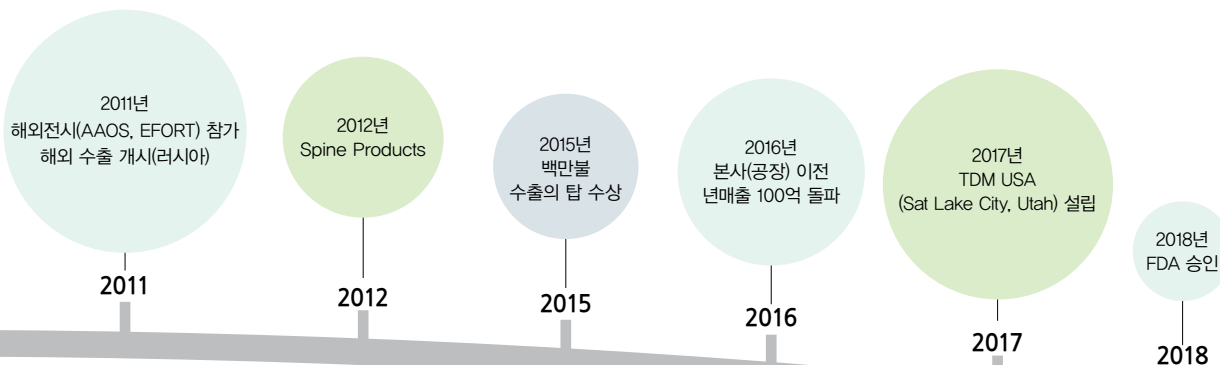


생산품목 다양화, 신제품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

(주)티디엠 골 접합용 의료기기 제품들은 머리부터 손과 팔/다리 골절, 얼굴교정(양악수술) 등 몸 전체에 사용되는 재료로 모두 생체의료용 임플란트에 이용되는 티타늄과 티타늄 합금으로 제조되었고 생체 접합성이 매우 뛰어나다. 그뿐만 아니라 뼈의 크기와 사용 부위에 따라 세분된 3,000종 이상의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제품 개선과 동시에 신규 제품개발을 진행하며 단순 국산화를 넘어 고유 디자인을 기획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개척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의료기기 제작을 목적으로 시작한 (주)티디엠은 국내시장에서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2008년 한국의료기기품질적합인증(KGMP) 획득을 시작으로 2009년 유럽 CE(유럽 통합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였으며, 2018년 2월에는 미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획득했다.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같이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가별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에 가까운 등록과정을 거치게 된다. 당사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2개 국가와 거래가 진행 중이며 중국, 필리핀, 태국, 사우디 등의 국가들과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1년 처음으로 중동국가 이란과 첫 수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4년 100만 불, 2017년 299만 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선도국가인 미국 시장을 개척하고자 2017년 11월 TDM USA, Inc.를 설립하고 유통망 개척 작업을 진행하며 해외시장을 발판으로 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주)티디엠의 가능성

정형외과 의료기기 시장은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의 계열사인 Depuy Synthes, Zimmer 등 다양한 다국적 기업과 국내 신규업체들이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저가의 중국업체 공략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주)티디엠은 3,000여 종에 이르는 골 접합용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술경쟁력과 스마트공장 구축 등 안정적인 제품생산 구조로 Depuy Synthes 이어 국내시장 점유율 2위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당사의 위상 덕분에 다국적 기업에서 OEM 제작들의 협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다. 또한, 골 접합제품의 다양성을 토대로 2013년부터 '척추치료 재료'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지금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공 뼈 제작'과 '초음파 골절 치료기'인 엑소스 개발 등 다양한 제품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생활 스포츠, 레저활동 인구의 증가로 스포츠 시장 분야도 정형외과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 국산화가 미비한 분야인 슬관절, 건관절에 사용될 '흡수성 인대 고정 나사' 등 관련 제품개발이 새롭게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매출성장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기 시장은 다른 바이오 시장과 달리 신약 효과처럼 급격한 성장이 진행되는 시장이 아니다. 하지만 투자 대비 안정적 수익으로 투자위



험 분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일반 제조업 대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 (주)티디엠은 2016년 광주 월출동 광산업단지 내에 대지 2,000여 평에 건평 700평 자체 사옥을 갖추고 본사를 이전하여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도입, 자체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설치하고 2021년에는 정형외과 제품 50대 기업 진입과 매출액 300억 원, 수출 1,800만 불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티디엠 주주구성

김선미 대표를 중심으로 초기 설립자 4명이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외부 투자유치 없이 성장했음에도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며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제품 국산화에 머물지 않고 해외시장 개척을 목표로 성장하는 (주)티디엠의 미래가 기대된다.

문의

(주)티디엠은 협회가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기업으로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사역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티디엠 박상수 소장 070-4941-7384
pinksspark@hotmail.com
-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R&D 사업팀
02-2156-2134~5
rnd@kvca.or.kr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운영 현황

투자 협력

벤처투자 사랑방



3월 벤처투자 사랑방 개최

본회는 지난 20일 '3월 벤처투자 사랑방'을 개최하였다. 이노백 등 중소·벤처기업 10개사와 DSC 인베스트먼트 등 벤처캐피탈 3개사가 참석하여 기업의 투자유치, 자금조달에 관한 1:1 대면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매월 넷째 주 화요일 개최되는 '벤처투자 사랑방'은 3월부터 '벤처투자마트'로 운영되며, 자금조달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단계(엔젤,

VC)에 따라 트랙을 분류하여 기업에 맞는 투자자와 멘토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본회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 자금조달 전략수립과 사업화 촉진을 지원 중이며, '4월 벤처투자 사랑방(마트)'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아래 주소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벤처투자 사랑방(마트) 참여 신청 링크 : <http://cafe.kvca.or.kr>

M&A

18년도 1차 M&A 자문기관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회는 18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을 안내하고, M&A 자문기관의 정보교류 및 역량 강화를 위해 3월 15일(목) 서초동 VR빌딩 B1 블루룸에서 「18년도 1차 M&A 자문기관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M&A 지원센터, 자문기관, VC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18년도 M&A 활성화 사업 주요 추진내용 안내, M&A 특강으로 구성되었으며, M&A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M&A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관련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특강은 최근 기

술혁신형 M&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기술가치평가 이론 강의 및 실습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들였다.

M&A 자문기관 워크숍은 앞으로도 교육 및 특강, 보유기업 IR, 매칭 상담, 네트워크 기회 마련 등 자문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자문기관 신규등록은 협회 M&A 지원센터(02-2156-2124)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코스닥협회 업무협약 체결

본 회(회장 이용성)와 코스닥 협회(회장 김재철)는 '18.3.7(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코스닥 기업 M&A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M&A 활성화를 통하여 코스닥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M&A 거래정보망 활용 및 양질의 M&A 물건정보 제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코스닥 기업 대상 M&A 거래정보망 홍보, M&A 거래정보망 등록정보 공유, M&A 매수·매도기업 매칭데이 및 컨퍼런스 공동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



으며, 코스닥 기업 M&A 매칭데이가 5월 4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코스닥 기업의 M&A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며, 중소·중견기업의 M&A 활성화 및 M&A를 통한 회수시장 체질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기업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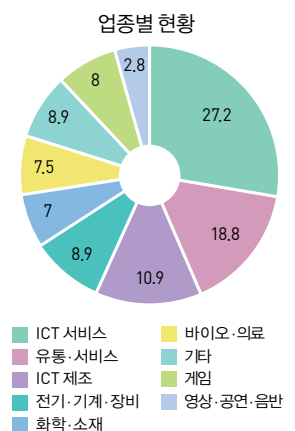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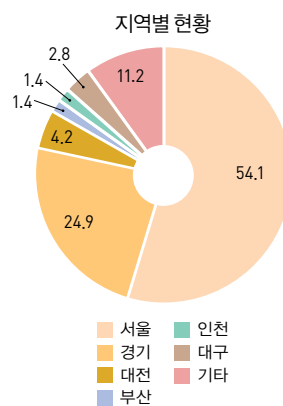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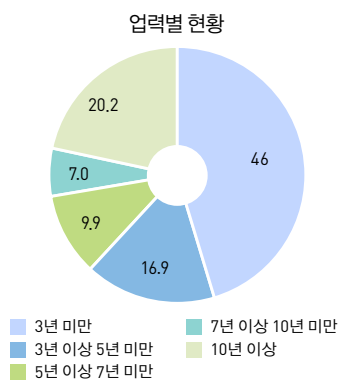
2018년 신규 벤처기업확인 현황

협회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1분기 확인받은 신규벤처기업은 총 213개사이며, 213개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기업 개요

(단위: %)



② 투자유치 현황

2018년 신규벤처기업 총 213개사의 투자유치금액은 총 3,089억 원이며, 아래는 해당 투자유치금액을 금액, 유형, 투자재원 및 회사별로 분석한 내용이다.

전체투자현황

(단위: 억 원)

구분	금액
총 투자금	3,089
평균 투자금	15
최고 투자금	90
최저 투자금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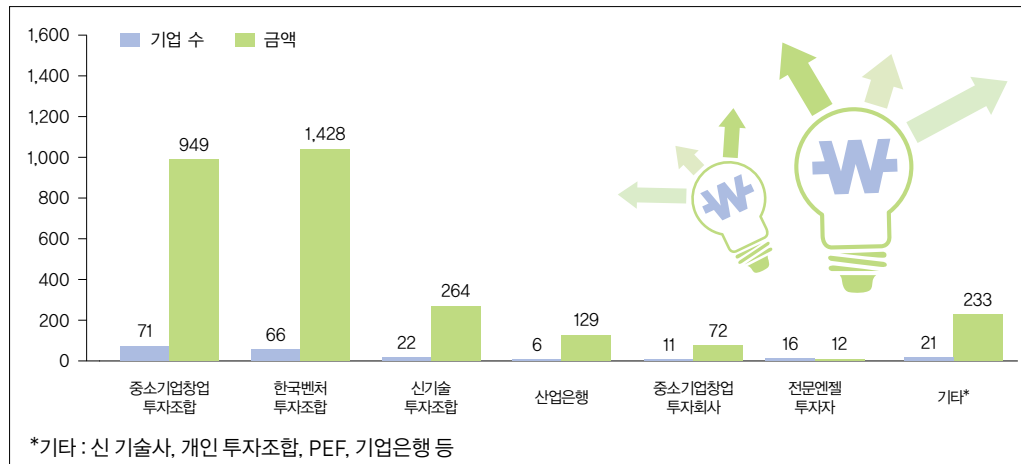
유형별 투자현황

(단위: 억 원)

투자유형	기업수	총 투자금
보통주	62개사	460
우선주	140개사	2,210
CB	22개사	320
BW	6개사	98

투자자원 및 회사별 현황

(단위:개사, 억 원)



R&D

『'18년도 글로벌스타벤처 육성 R&D 과제』 1차 공고 사업설명회

본 회의는 3월 12일(월) VR빌딩에서 '글로벌스타벤처 육성 R&D 과제' 1차 추천기업 중 행사에 참여한 53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R&D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온라인 신청요령과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다. 1차 추천기업은 4월 6일(금)까지 R&D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서면평가와 사업성 심층평가(전문가 방문평가)를 거쳐 최종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본 회

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사업파트너 발굴, 해외 진출 프로그램 등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차 추천기업 모집은 4월 말부터 진행되며, 이는 각 투자기관의 투자관리본부 및 기획·관리본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17년도 중기부 멘토링 프로그램』 투자기관 매칭데이 개최

본 회의는 중기부 R&D 사업인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기업 중 VC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IR' 분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7일(수)과 13일(화) 이틀간 멘토링 기업과 투자기관과의 1:1 상담회가 진행되었다. 고압 믹싱헤드 및 이와 관련된 설비 등을 제조하며 폼메트리스를 개발하

는 PU 종합솔루션 기업과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SBI인베스트먼트 등 투자기관이 참여하였다. 본 회의는 올해도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기부 R&D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필요한 IR 자료 코칭 등 멘토링을 이어갈 예정이다.

KVCA 소식



한국 VC 대표단 이스라엘 선진 벤처 생태계 시찰



본회는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경제무역대표부와 공동 주관하여 3월 10일(토)~ 3월 16일(금) 총 5박 7일 일정으로 '중동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방문하였다. 이번 현지 벤처 생태계를 시찰한 한국 VC 대표단은 한국투자파트너스, LB인베스트먼트, KTB네트워크 등 VC 16개사, 2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방문지로는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사, 인큐베이터, 기술이전센터 등으로, 이스라엘의 선진 벤처 생태계를 체험하고 바이오, AI, IoT, 자율주행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했다. 또한 현지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양국 간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IFRS 대응방안 관련 전문가 회의

3월 14일(수) 협회 대회의실에서 IFRS 대응방안 관련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어 회원사 6개사(대성창업투자, 아주아이비투자, 엘비인베스트먼트, 케이비인베스트먼트, 티에스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7년 10월에 개최했던 IFRS 회의 이후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보고자 개최되었으며 IFRS 시행 이후 각 사별 공정가치 평가 현황 및 추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1차 문화콘텐츠투자기관협의회

3월 15일(목), 본회는 제1차 문화콘텐츠투자기관협의회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총 16개사 중 10개사가 참석하여 벤처투자 동향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 한국 영화산업 결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후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2017년 결산 및 2018년 예산, 회비, 협의회 개최일정과 춘계 워크숍 등을 논의하였다.

제1차 외국투자기관간담회

본 회는 제1차 외국투자기관간담회를 3월 29일(목)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11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하는 한편, 또한 최신 벤처 투자 동향 발표에 이어 KEB하나은행 FDI센터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세부 절차 및 이후 법무법인의 개정 투자계약해설서 등의 세미나를 제공하였다.



신규회원사 방문(NH투자증권, 요즈마그룹코리아)

본 회는 신규가입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3월 15일 NH투자증권, 3월 21일 요즈마그룹코리아를 방문하여 회원패 전달 및 협회에 바라는 점 등과 관련하여 간단한 미팅을 진행하였다. NH투자증권은 2017년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공격적으로 벤처투자시장에 진출하고자 협회에 가입하여 다양한 정보 및 네트워크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100억 원 투자 규모였던 벤처투자를 올해에는 500억 원으로 늘



려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요즈마그룹코리아는 2015년도에 설립하였으며 투자 전문 글로벌 컨설팅 기업으로 지속적인 MOU를 통해 저변을 넓혀가는 중이다.

협회장 동정

성장지원펀드 출범식 참석

본 회 이용성 회장은 3월 29일(목) KDB산업은행 본점 1층 스타트업 IR센터에서 개최된 '성장지원펀드 출범식'에 참석하였다.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출범식은 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이어, 유망 스타트업 IR(1개사), 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 협약식 순으로 이어졌다. 이용성 회장은 축하를 통해 "성장지원펀드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작점"이라며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길 바란다"고 축하와 바람을 전달하였다.



회원사 소식

회사명·대표이사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회사명	케이큐브벤처스	카카오벤처스
대표이사	유승운, 신민균	유승운, 정신아

대표이사 변경 »

회사명	변경전	변경후
서울투자파트너스	강무경	맹동준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모성수, 김태주	모성수, 최정현
케이비인베스트먼트	박충선	김종필
키움인베스트먼트	박상조	김동준

신규가입

회사명	대표	주소
우노인베스트먼트	우승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302호(삼성동 남경센터)

사무실 이전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미니투자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6층 616, 617호(문정동)	02-3453-3190	02-3453-3189

◎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코스닥 상장 이후 처음으로 온전한 한 해를 보낸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가 우수한 경영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 수년간 활발하게 진행해온 펀드레이징 성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평가된다. 운용자산 확대로 조합관리보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실적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설립 후 처음으로 조합성과보수를 기록한 점도 고무적이다.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8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3% 증가했음을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8.1% 증가한 68억 1,800만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113% 증가한 22억 4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가 코스닥 증시에 입성하였다. 공모가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에서 시초가를 형성하면서 상장을 준비 중인 다른 벤처캐피탈의 기대를 한층 끌어 올렸다. 린드먼아시아는 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해 1만 3,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하였다. 이후 가격제한폭(30%)인 1만 6,900원에서 거래가 종료되었다. 이는 공모가 6,500원의 2.6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877억 5,000만 원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크게 웃도는 2,282억 원에 형성되었다. 린드먼아시아의 성공적인 증시 입성에 벤처캐피탈 업계의 기대감도 한층 부풀어 오르고 있다.

◎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벤처투자가 보톡스 제조사 바이오씨앤디 투자금을 3년 만에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분 매각 대가로 받은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주가 흐름에 따라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오씨앤디는 미래에셋벤처투자를 비롯한 벤처캐피탈 투자를 유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였다. 코넥스 입성 이후 코스닥 이전 상장을 노리던 바이오씨앤디는 올 1월 파마리서치프로덕트와 M&A를 성사시켰다. 이를 계기로 재무적투자자(FI)들은 엑시트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미시간벤처캐피탈

미시간벤처캐피탈이 청년창업펀드 결성을 완료하였다. 유럽계 대체투자 전문 모태펀드와 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한 게 특징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시간벤처캐피탈은 이날 250억 원 규모의 '미시간글로벌파이오니아투자조합' 결성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투자처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 소프트뱅크벤처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미국 바이오 의약품 스타트업 투자아(twoXAR)에 투자하였다. 이번 투자는 여러 벤처캐피탈이 참여하는 공동 투자 방식이며, 소프트뱅크벤처스와 미국의 벤처캐피탈 안데르센호로위츠(Aandreessen Horowitz)가 투자를 주도하였다. 총 투자액은 1천만 달러(한화 약 107억 원)다. 투자자는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신약 개발을 연구하던 앤드류 A. 레이딘이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 주목받았다.

◎ 스틱인베스트먼트

스티크인베스트먼트가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였다. 업계에 따르면 스틱은 이달 '팬아시아 4차산업 그로쓰캐피탈 펀드' 출자자 모집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다양한 LP의 내부 결재작업 시일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지만 예상 클로징 시점을 이달 말로 예상하고 있다. 펀드 규모는 3,000억 원이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의 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으로부터 출자 약정을 받고 노란우산공제회 국내 대체투자분야로부터 출자를 약정받아 상반기에 이미 1,000억 원 가량의 출자금을 약속받았다.

◎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가 핀테크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다. 우리기술투자는 타이러스홀딩스(Tyrus Holdings)와 함께 234억 원 규모의 '우리타이러스 글로벌 핀테크 투자조합 13호'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성으로 우리기술투자가 운용하는 펀드는 우리 초기투자조합10호, 우리 초기투자조합12호, 우리타이러스 글로벌 핀테크 투자조합 13호 총 3개로 늘었다. 운용자산 규모도 43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 유티씨인베스트먼트

반도체 성장펀드 2차년도 사업에 유티씨인베스트먼트 1곳이 단독으로 운용 제안을 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반도체 성장펀드 2차년도 출자사업 규모는 총 350억 원(지정출자자 100억 원 포함)이다. 당초 성장금융은 2차년도 출자사업에서 하위펀드 분야의 구분 없이 2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반도체성장펀드(모펀드)를 통해 운용사에 각각 175억 원씩을 출자하고 최소 350억 원의 펀드 2개를 조성한다는 목표였다. 성장금융은 일단 운용을 제안한 유티씨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가 관광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가운데 두 번째 관광주목적 펀드를 결성하였다. 앞서 운용 중인 관광 펀드에서 성과를 내면서 운용사의 출자비용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에스제이는 KB증권과 결성한 'KB-SJ 관광벤처조합'의 본격적인 투자 활동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50억 원을 출자한 관광산업육성 펀드는 27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운용사 외에 여행사 하나투어도 약 25억 원을 출자하였다.

◎ 케이넷투자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LLC)형 벤처캐피탈 케이넷투자파트너스가 청년창업펀드를 1차 클로징(출자자 모집 마감)하였다. 업계에 따르면 케이넷은 최근 '케이넷청년창업펀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통상 벤처투자펀드는 조합원 총회일을 펀드 결성 마감일로 간주한다.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투자처 발굴에 나서게 된다. 케이넷은 일단 케이넷청년창업펀드를 438억 원 규모에 1차 클로징하기로 하였다. 이는 목

표 약정액의 70%만 모집할 경우 펀드 운용을 가능토록 한 '70%룰'을 적용한 사례다. 케이넷은 향후 수개월간 추가로 출자자를 모집해 5월 말~6월 사이에 최종 클로징을 한다는 방침이다.

◎ 케이에스티인베스트먼트

케이에스티인베스트먼트가 창업투자업 라이선스를 반납하면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설립된 지 지 불과 약 1년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케이에스티인베스트먼트의 창투자업 라이선스를 말소하였다. 이번 조치는 케이에스티가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케이에스티는 한국과학기술지주가 2016년 10월 자본금 50억원을 100% 출자해 설립한 벤처캐피탈이다.

◎ 프리미어파트너스

프리미어파트너스가 400억 원 규모의 벤처조합 결성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바이오펀드 결성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기존 정보통신(IT)펀드 투자금 소진으로 추가 실탄 마련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프리미어파트너스는 400억~500억 원 규모 IT 전문 투자조합 결성을 위해 LP 모집에 나섰다. 모태펀드와 한국IT펀드(KIF), 금융권 등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태펀드와 KIF는 기존 프리미어가 결성한 펀드에 여러 차례 출자금을 납입하였다.

협회 신규가입 회원사 소식

(주)우노인베스트먼트

(주)우노인베스트먼트는 코스닥 상장사인 '주)우노엔컴퍼니'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이다. 자본금은 100억 원으로 올해 3월에 등록되었으며 상근하는 임직원은 총 3명이다.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 ICT·모바일 등 미래 유망산업과 소비재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 회사명의 의미(혹은 사훈과 그 의미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우노(UNO)는 라틴어로 “하나, 일치시키다. 하나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우노인베스트먼트는 회사를 둘러싼 주주, 출자자, 임·직원, 피투자회사 등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협력 동반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모두가 Win 하도록 하는 최고의 투자회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역점 투자 분야

우노는 바이오, ICT 모바일, 소비재 등 미래 유망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핵심기술을 보유한 비상장(코넥스 포함) 중소·벤처기업 주식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 모바일 광고, 핀테크 등을 포함하는 ICT·모바일 분야 또한 주요 투자 검토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중국의 거대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재 산업과 이차전지, 차세대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도 관심 분야 중 하나입니다. 각 영역별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찾아내고 해당 산업의 성장 속도, 기술 및 전방산업 변화 동향, 동종 산업 내 기업들의 시장가치 변화 등을 참고

하여 영역별 우선순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투자 원칙 1순위

우노의 투자 원칙은 기술력과 산업의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있는 산업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우노의 자금과 투자 후 네트워크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장의 결실이 결국 새로운 펀드 결성, 투자 및 회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향후 펀드레이징 전략

현재 1호 VC 펀드를 결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1호 펀드가 결성되면 당분간 1호 펀드의 결성과 운용에 주력할 예정이며, 인력과 Track_record가 부족한 신생 창투사로서, 1호 펀드 운용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프로젝트펀드의 결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 직원 채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일에 대한 열정과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기본을 갖춘 인재는 머지않아 회사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벤처캐피탈리스트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연수원 소식

|| 2018년 벤처캐피탈 스팟 아카데미(1회차) 블록체인 산업 분석 개최 ||

연수원에서는 가상화폐 열풍 이후 급부상한 블록체인을 주제로 선정하여 산업 이슈와 기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신 기술 트렌드를 짚어보는 본 교육과정은 올해 총 3회 계획되어 있으며, 2회차 교육은 M&A 법률을 주제로 4월 11일 수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개최 예정이다.

- 일자 : 2018년 3월 7일 수요일 (1일 출석)
- 장소 : 서초동 VR빌딩 B1 블루룸

내용	강사
(특강)블록체인 산업 현황 및 전망 - 법률 제도, 규제 실태, 세무 이슈 등	페이게이트 이사 이동산
블록체인 기술 응용사례	블록코 상임고문 김종환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스타트업 투자유치 사례	모인 대표 서일석

|| 4월 교육 안내 ||

교육명	2018년 벤처캐피탈 문화콘텐츠 전문가 과정
운영 형태	3일 출석
일자	4월 4일 수요일 ~ 6일 금요일
vv대상자	창투사, LLC, 신기술금융사, 기타 일반 등
과정 개요	문화콘텐츠 분야별 산업 현황 및 콘텐츠 저작권 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교육명	2018년 벤처캐피탈 스팟 아카데미(2회차) - 중소벤처기업 M&A 법률 실무
운영 형태	2일 출석
일자	4월 11일 수요일 ~ 12일 목요일
대상자	창투사, LLC, 신기술금융사, 기타 일반 등
과정 개요	VC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연중 수시 진행되는 키포인트 단기 집체교육
교육명	2018년 제24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공통/필수)
운영 형태	4박 5일 합숙 / 3일 출석
일자	4월 23일 월요일 ~ 27일 금요일 / 5월 2일 수요일 ~ 4일 금요일
대상자	벤처캐피탈 업계 및 금융 관련 업계 종사자, 일반인 등
과정 개요	벤처캐피탈 투자 심사인력 양성 교육

Epilogue

격려와 사랑이 담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습니다.



편집자 노트

지난 1990년부터 발간해 온 벤처캐피탈 뉴스레터가 이번 4월호부터 「VC Discovery」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강산이 두 번도 변할 수 있는 18년이라는 시간동안 VC 업계는 역동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VC Discovery는 VC 산업을 대표하는 간행물로서 보다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콘텐츠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VC Discovery 4월호에 대한 후기 및 소감을 작성해 담당자 newsletter@kvca.or.kr 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서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며 다음 호 <자유게시판>에 게재합니다.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독자 참여 퀴즈



Q. 지중해 동남방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창업의 요람이라고도 불리며 선진 기술과 글로벌한 벤처 문화가 발전해, 최근 한국의 VC 대표단에서 방문 시찰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정답을 작성해 담당자 newsletter@kvca.or.kr 로 보내주신 분 중 3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달의 VC용어

Q 상환전환우선주란?

A 스타트업은 경영과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투자 유치의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조건(옵션)이 붙은 특수 주식을 발행하는데 투자자에 상환권과 전환권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가 이에 해당한다. 상환전환우선주는 기업의 이익잉여금의 한도 내에서 약정 기간(보통 2년) 이후 투자자의 상환 요청 시 상환의 의무가 발생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고 만기에는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상장 기업인 경우 주가 상승 시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해 차익을 올릴 수도 있다. 투자를 유치한 기업 입장에서 우선주는 투자자의 상환시 창업자의 보유 지분율을 높일 수도 있으며, 투자자로부터 경영권에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투자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VC Discovery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조성 및 인프라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VC Discovery〉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VC Discovery〉는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VC Discovery
정기 구독 신청 문의 및 기고 보내주실 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 TEL. ☎ (02)2156-2141 • FAX ☎ (02)2156-2110

• E-mail ☎ newsletter@kvca.or.kr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